

돌봄 생태계와 나이듦

김영옥 (전 생애문화연구소 옥희살롱 공동대표)

생태계

광합성이라는 ‘생산’ 현상, 그리고 ‘분해’ 현상

영겁토록 이어지는 것은 바로 이 분해의 공동 작업, 바로 그것이다. 분해는 한 개체에서는 완수될 수 없다. 분해하는 측의 복수의 행위자들의 협력 관계만이 아니라, 분해하는 측과 분해되는 측의 암묵적 협력 관계가 전제된다. 주체적이지도 객체적이지도 않은 ‘분해’ 작용의 담당자들.

《〈생명에서 생명으로 - 인간과 자연, 생명 존재의 순환을 관찰한 생물학자의 기록〉》 (베른트 하인리히: Life Everlasting: The Animal Way of Death)

《〈분해의 철학_부패와 발효를 생각한다〉》(후지하라 다쓰시)

돌봄

삶과 관계/성을 생산,
변형, 재생/산하는



돌보도록 이끄는 힘 (서보경)

‘돌보는 (사람)’의 자리

‘돌봐지는 (사람)’의 자리

‘돌보는’ 자리



예술 작품 빛듯 송편 만들기에 열중이십니다.

“와 이레 못 생깁노, 손이 굳어 예쁘게 안 만들어진다.”

왕년의 솜씨가 나오지 않는가 봅니다.

"아니요, 이쁘게 만드셨네요. 양쪽 꼬트머리만 꼭꼭 눌러 속만 안 터지면 됩니다," 하며 칭찬해 드렸더니 한 마디 더 하시네요.

"옛날에는 왜 그렇게 송편만 만들면 잠이 쏟아지던지..."

여러 가지 음식 준비하느라 명절이면 얼마나 피곤하셨겠어요.

옆에서 묵묵히 송편 빚던 어르신이 "아마도 올해가 송편 만드는 마지막 해가 안 되겠나," 하며 서글픈 듯 넋두리를 하시네요.

"모르긴 해도 10년은 더 만드실 겁니다."

"무슨 그런 태도 없는 소리를 하노" 하시며 손사래를 치셨지만 내심 싫지는 않으신가 봅니다. 오늘도 어르신들과 좋은 추억 하나 쌓아갑니다.

(김영희 _ 노인요양시설)

K 어르신 점심 드시고 낮잠을 자고 일어나더니 계속 침을 뱉으신다. "침 뱉지 마세요." 했더니 입안에 연탄재가 들어가서 뱉어야 한단다. 연탄 나르셨냐고 물어보니 연탄재에 넘어져서 입안으로 연탄재가 다 들어갔다고 하신다.

침 뱉기를 멈추지 않아 양치 컵에 물을 받아서 입안을 몇 번 헹구어 들였다. 이제 입안이 깨끗하다며 방긋 웃으신다.

(김홍남 _ 노인요양시설)

며칠 전 여자 어르신 한 분이 입소를 하였다. 거실에서
담소 중이신 어르신들과 친해지기를 바라며 한 자리에
모셨다. 어디서 왔는지? 이름은 무엇인지, 자녀는 몇인지
서로 궁금한 사항을 물으며 약간의 기싸움이 느껴진다.
마지막으로 나이를 묻는데 입소 어르신이 "나는 멍살,
참살, 보리살, 좁살 다 먹어봐서 몇 살인지 모르오" 하며
한 방으로 제압해 버린다.

(김홍남_ 노인요양시설)

치매 5등급 Y 어르신은 일상에서 많은 것을 기억 못하지만
항상 작은 것에 진심으로 감사해 하신다. 보청기를
찾아드려도 "감사합니다." 물을 떠다 드려도 "감사합니다."
산책 나갈 때 먼저 나가서 현관에 가지런히 신발을
챙겨드려도 "감사합니다." 어르신의 좋은 습관은 상대를
기분 좋게 한다. 아기가 되어 버린 Y 어르신의 복이 작은
것에 감사하는 것에 있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김춘숙_방문요양)

넙쿨손

“어찌겠노,
손 내밀면
잡아줘야지!”



내가 참 힘겨워했던 어르신이 계셨다. 버스 세 정거장 떨어진 곳에 시장이 있는데,
그때마다 보행이 불편한 어르신과 동행하기에는 거리가 멀었다.

어르신이 설명하신대로 채소를 골라서 사왔지만, 마음에 맞지 않을 때에는
잘못 고른 요양보호사 탓이고, 어르신과 동행하여 직접 골라서 샀을 때에는,
나쁜 물건 파는 가게 탓이고.

음식을 조금 더 익히면 물탱이라고 하시고, 조금 설익히면 살아났다고 버리시고,
나는 어르신 맘에 들지 못하고 스스로 멍청이가 되어 갔다.

돌아오는 길에 쭈그리고 앉아 양지쪽에 핀 꽃을 보고 또 보고,
담장 너머로 얼굴 내민 꽃을 한참을 우두커니 서서 보기도 했다.

다음 집 이동 시간이 바빠도 먼 길을 돌아 공원에 가서 꽃들을 들여다보며 마음속의
돌을 녹였던 기억이 난다.

요양원 입소하신 어르신은 잘 계실까.

(오귀자 _ 방문요양)

나는 센터에 출근하면 98세 양이 할매의 언니가 된다. 간식을 먹다 남겨서 언니 준다면 나를 찾고, 밥을 국에 말아서 남기면 언니 준다고 하고, 어느 날은 할매가 입던 늘어진 티셔츠를 가져와 "좋은 거야. 언니. 이거 입어" 하시고, "언니, 우리 집에 가서 같이 살자" 하시고, 양이 할매의 관심은 온통 나에게 쏠려 있다. 부담스럽기도 하고 때로는 짜증 날 때도 있지만 언니가 동생 챙기듯 오늘도 양이 할매 등을 토닥거리주면서 양이 할매 이야기에 귀 기울여준다.

(정찬미_데이케어센터)

덩이뿌리 (리쫄)



촉수 있는 것들 : 촉수성 (더듬이 / 더듬다, 시도하다 / 더듬어 탐사하다) -
실뜨기 (string figures) / (글)짓기-잇기 - 이야기하기 / 말하기 - 엮(히)기
-휘말리기-물질-기호론적 세계들의 패턴 만들기 / 물질-기호론적 퇴비 만들기
- 망이며 네트워크 - 배양하기 / 가꾸기

“결속은 역시 정치적인 수밖에 없다. 그것은 한나 아렌트가 말했듯이
'사람들이 서로에게 직접 행동하고 말하는 것'의 현실 속에, 사람들이
관심사(inter-est)를 발견하는 사이-안(in-between)에,
'인간관계의 망web'이 짜여 있는 곳에 있다.”

(팀 잉골드, <모든 것은 선을 만든다 _ The Life of Lines>

몸으로 사는 존재

신체적으로 윤리적이고 정치적인 의무는
전염성이 있거나, 있어야 한다.

(도나 해러웨이 <트러블과 함께하기 _ 자식이 아니라 친척을 만들자>)

나는 돼지가 되고 싶다 (김미루)



나는 내 형상 속에서 동물을 느낀다.

이 느낌은 교감의 일종이지 수치심이 아니다.

나의 동물성을 인식한다는 것은 내 몸이나 다른 비규범적이고 상처 입기 쉬운 몸들이 자신의 주변 세계를 움직이고, 보고, 경험하는 방식으로 존엄성을 주장하는 것이었다.

그것은 나의 동물화된 부위와 움직임에 대한 주장이고,

내 동물성이 내 인간성에 필수적이라는 주장이다.

이것은 동물성이 인간성에 필수적이라는 주장이기도 하다.”

(《〈짐을 끄는 짐승들〉》, 수나우라 테일러)



환경 인종주의 (<돈의 냄새>)



다시 상호 피어남으로

어떤 이야기가, 내가 알고 있다고 생각한 걸 기억하게 해주거나 새로운 지식을 소개할 때마다, **피어남 (flourishing)**을 챙기는 데 중요한 근육이 유산소 운동을 하게 된다. 이 운동은 집합적인 사고와 복잡성 속에서의 움직임을 향상한다.

차이가 중요하다 - 생태, 경제, 종, 삶에서.

우리 모두에게 어려운 시대와 장소를 탐색할 수 있는 **지도 감각**이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도나 해러웨이 _ 에바 커테이 _ 마사 누스바움)

저희 이용자들은 정말 손톱만큼 자라요.

직업 훈련을 일주일에 2시간만 연습을 했는데, 외부 기관 가서. 처음에는 이제 가서 안 하려고 그러고 막... 근데 이번 주예요. 비닐봉지에 면봉 10개를 넣는 건데 비닐이 남고 면봉이 없었거든요. 더 주세요, 이러는 거예요. 제가 정말 눈물이 내려는 거예요, 감동이 돼가지고. 세상에 그렇게 안 하려 그러고, 막 중간에 이제 막 이렇게 집에 가자 그러고 막 했는데, 2시간 동안 하고 그걸 더 달라 그래, 그게 너무 보람된 거예요. 1년 반 만에, 거의 2년 만인가 ...

처음에는 30분 집중하다가, 1시간 지금 2시간 집중하고, 이제는 끝날 시간이 됐는데도 더 주세요, 그럴 때 되게 감동이죠.

(000, 단기시설)

1인 시설화의 위험

늘 불안하죠. 내가 이용자라지만 그가 언제든 그만두겠다고 할 수 있으니까. 5년이 지나고 7년이 지나도, 10년이 다 되고, 그동안 내 몸을 누구보다 세세히 아는 사람이 되었어도 말이죠. 내 몸과 그의 돌보는 손길 사이에는 편안하고 익숙한 루틴이 생겼어요. 그래서 더 두렵기도 해요. 더 이상 내게 묻지 않아도 된다고 생각하니까요. 알게 모르게 주도권이 그에게 넘어가고 나는 익숙함의 이름으로 통제되기 쉽죠. 어쩌면 내 쪽에서 이제 헤어지자고 말해야 할지도 몰라요.

어떤 **활동지원사**를 만나는가는 **장애인에겐 정말 중요한 일**이에요. 둘의 긴장된 관계를 그냥 이용자의 선택권과 돌봄노동자의 노동권으로만 축소하는 건 너무 양상하고 위험한 관점이에요.

(장애여성공감)

생명 생태계로 이해하는 노년기 :

‘떨어지는 모든 추락은 약속으로 가득 차 있다.’

나의 죽음은 단절이나 의미 없는 소멸이 아니라 ,

다음의 또 다른 생명으로 이어지는 충만한 변화다.

세대 간 연대 : ‘서로 응대’의 즐거움으로

함께 시간의 춤을

감사합니다^^

